



금남로 '성난 횃불' 광주·전남지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가 지난 29일 밤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개최한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서 시민·학생들이 횃불을 들고 금남로를 행진하고 있다. 횃불이 등장한 것은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이후 처음이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원침 (7520) 김종두



“우리집은 광우병 쇠고기 반대합니다”

광산구 첨단 두산 1차 아파트 '현수막 달기' 인근 아파트로 확산

“우리집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합니다.” 지난 29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두산 1차 아파트...

광우병 구매자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 광우병 반대 현수막을 제작하고 있는 한 인쇄업체 대표는 “이날까지 현수막 2천 700여장을 판매했다”며 “날마다 100~200개의 추가주문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두산 1차 아파트 주민들이 '광우병 반대 현수막'이 나붙은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인현주기자 ahj@

광주·전남 대학 동맹휴업 추진

전국서 美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동맹휴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동맹휴업을 묻는 투표를 진행중이며, 부산지역 대학생들도 6월 4일을 동맹휴업일로 정했다.

일부러 단식에 들어갔으며, 전남대 집행부 6명도 지난 16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번 주말 서울 집회에서 삭발을 계획 중이다.

강운태·유선호 의원 불구속 기소

18대 국회가 30일 개원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통합민주당 유선호 의원과 무소속 강운태 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돈을 받았다는 사람과의 대질조사를 거부하고, 배후 음해세력에 대한 수사 요청도 무시했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성인 여성 1천명 가운데 2.2명 꼴로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발생한 성폭력 사건 가운데 강간 또는 강간미수의 경우 신고율이 7.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여성 1천명중 2.2명 강간·강간미수 피해

여성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형사정책연구원이 전국 9천847가구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의 19~64세 남녀 1만3천6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

이해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여성부는 설명했다. 성폭력 가운데 음란전화가 1천명당 32명(84.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신체 일부를 건드리거나 몸을 밀착시키는 등의 ‘가벼운 추행’ 24.6명(52.5%), 이른바 ‘바바리엔’에 의한 ‘성기노출’ 19.2명(36.5%)...

최진실씨 자녀들 姓 엄마성 최씨로 바꿔



탤런트 최진실 <사진>씨의 자녀들이 엄마인 최씨의 성(姓)을 쓰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홍창우 판사는 최씨가 자녀 2명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바꿔달라며 낸 신분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Weather forecast for Gwangju and surrounding areas, including temperature, wind, and precipitation data for May 31st.

황사주의보

광주·전남 내일까지

광주지방기상청은 30일 오후 4시 30분을 기해 대륙산도·홍도를 포함한 광주·전남 지역에 황사주의보를 발표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황사주의보는 31일 오전까지 강하게 지속된 후 오후부터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파업뎀 준공영제 재검토”

시내버스 노사 마라톤 협상 입장차 못 좁혀 노조 파업 결의...광주시 초강수 대응 방침

광주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강행을 예고하고 나서서 광주시가 ‘준공영제 재검토’라는 초강수 대응 방침을 밝히며 맞대응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30일 ‘시내버스 파업 예고에 따른 대시인 담화문’을 통해 “막대한 시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를 도입한 마당에 파업을 강행키로 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며 이로 인한 ‘대중교통 스톱’이라는 사태에 이르도록 방치한 모든 책임은 사업주와 광주시가 져야 한다”고 맞대응했다. 시는 “노조의 부당한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고 위법 부당한 파업은 원칙에 따라 대처해 나가겠다”며 “파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시내버스 노사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하직원 살해범 검거 감사” ○부하직원을 살해한 강도범 붙잡은 경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김기주 광주국세청장이 광주서부경찰서를 방문.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30일 오후 3시에 서부경찰 강력 5팀을 방문, 나주세무서에서 근무하던 직원 김모(31)씨를 살해한 최모(15)군 등 범인 4명을 검거한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는 것. ○김 청장은 사건 발생 직후에도 경찰서를 방문해 “범인을 조속히 검거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숨진 직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7일 새벽 0시 35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E원목 1층에 침입, 나주세무서 공무원인 김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강도범 사건 발생 36일 만에 검거. /이종형기자 golee@